

영화·콘서트 보러갈까



●영화 **‘죽여주는 여자’** 6일 개봉 | 감독 이재용 | 주연 윤여정·전무송·윤계상 | 111분 | 청소년관람불가
몸을 파는 65세의 ‘박카스 할머니’가 죽음을 앞둔 한 노인의 기묘한 부탁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노인들의 힘겨운 일상을 그리면서도 트랜스젠더와 장애인, 코피노 소년 등 사연을 지닌 또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바꾸러 파스 한 시선을 펼쳐놓는다. 윤여정이 열연해 이미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고 제20회 몬트리올판타시아국제영화제에서는 여우주연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탈리아 아시아티카 영화제 작품상 등을 수상하며 영화의 진가를 알렸다.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2016’ 10월22~23일 | 서울 올림픽공원 | 전체관람가



대표적인 가을 시즌 야외 음악 페스티벌. 가을 소풍을 즐기는 듯한 공원으로 연인, 가족단위 관객이 많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한다. 22일에 어반자카파 10cm 스왓소로우 각스 장기하와 얼굴들 커피소년 이지형 소란 이승열 페퍼톤스 박진영 등이 출연하고, 23일엔 이한철 스탠딩오가 자이언티 데이브레이크 몽니 혁오 브로콜리너마저 널 옥상달빛 빌리 어코스티 정준일 노리플라이 등이 무대에 오른다. 시간당 6mm의 강수량을 넘지 않으면 우천시에도 공연이 진행된다. 문의 1544-1555.

●故 신해철 2주기 추모 공연 10월29일(오후7시) | 서울 이태원동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 120분 | 만12세



2014년 10월27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을 추모하기 위한 공연. 작년 1주기 공연에 출연했던 고인의 생전 소속 팀 벡스트와 홍경민, 지우(에메랄드 캐슬)를 비롯해 DJ DOC 김동완(신화) 김현성 케이윌 옥요한(피아) 은가는 김형중이 출연한다. 공연에 앞서 10월27~28일 고인의 공식 팬클럽 철기군 측이 팬들이 고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벌인다. 문의 02-3141-3488.

“행복은 공짜…주변에 널려있어요”

‘소풍가듯 가볍게’ 떠낸 월도스님

행복하지 않다면 원인은 바로 나
‘지혜롭게’ 사는게 중요
현실에 만족하면 행복이 보여요



서울에 행한 월도스님 소개

그다지 두껍지도 않은 250쪽짜리 단행본 ‘소풍가듯 가볍게’는 정말 즐겁고 편하게 읽혔다. ‘마음만 먹으면 인생은 즐거운 소풍길’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딱딱하고 머리 아픈 것만 같은 불교의 가르침을 초등학교도 고개를 주억거릴 만한 쉬운 말과 글로 전하고 있는 월도 스님이 썼다.

종로구 삼일대로(경운동)의 대한불교 천태종 서울사부소에서 저자 월도 스님을 만났다. “스님을 보러 오는 길이 소풍가듯 가벼웠다”고 하니 월도 스님이 웃었다. 참 편안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 이 책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왜 ‘행복’을 말하고 싶었나.

“의식주가 충족되고 나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나. 다 행복을 위해 공부를 하고, 인연도 찾는 것이다. 현재의 행복뿐 아니라 내세의 행복까지 추구하는 것이 종교다.”

-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행복해지기까지의 과정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행복은 공짜가 아니지 않나.

“행복은 이미 주변에 널려있다.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다녀오라고 시키곤 한다. 몸의 감각이 없는 환자들은 통증이 오면 오히려 기뻐한다. 사치를 움직이고, 밥을 먹고, 제 발로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행복인지 알아야 한다. 행복은 공짜다. 사람들이 열매를 주을 줄을 모를 뿐이다.”

-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썼다. 사람들은 손해 안 보는 것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여긴다. 스님의 지혜와 사람들의 지혜는 다른 것 같다.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행복을 붙들려 애쓰지 말고 지금 바로 누리세요.” 현대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친절하고 쉬운 안내서 ‘소풍가듯 가볍게’를 낸 월도스님이 행복의 비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다 남의 탓 같지만 내려놓고 객관화해서 자신을 보면 스스로가 모순임을 누구나 깨닫게 된다. 행복하지 않은가? 내려놓고 스스로를 바라보라. 원인은 나에게 있다.”

- 욕심은 왜 끝이 없을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허말라미만한 보물이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구라고 했다. 부처님의 말씀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에서 만족을 찾는다. 물질을 채워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은 어리석음을 뿐이다. 현실에 만족하라.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라.”

- 책 중에 ‘조약돌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라는 문장이 유독 눈에 띄었다.

“불교에 처염상정(處染常淨)이란 말이 있다.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박고 생명을 유지하지만 맑고 향기롭다.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조약돌이다. 스스로를 덜어내고, 조화하면서 둥글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보따리 들들 싸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 가봐야 득도 실패 없는

‘고독한 나’일 수밖에 없다.”

- 결국 행복하고 싶다면 현실에 만족하고 양보하며 살라는 얘기인가.

“손해 보는 삶에 복이 있다. 더 갖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더 주고, 먼저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줘라.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 도와줘라.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은 저절로 깨끗해진다. 물질적으로 주는 것만이 주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잘 되었다면 진심으로 기뻐해주어라. 마음만이라도 줘라.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월도스님

▲충북 괴산 출생 ▲소백산 구인사에서 출가 ▲현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 총무부장·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금강신문 및 월간금강 사장·분당 대광사 주지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책 읽는 주말

●스포츠잡 알리오 (김선홍·변준희·김경민·민기홍 저 | 북마크)



스포츠잡 알리오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네이버, 아디다스 등 프로그래밍과 대기업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한국프로 축구연맹 등 공공기관을 지나 스포츠기자, 탐타터, 스포츠에이전트 등 다양한 직업군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산업의 취업비법을 40인의 멘토가 낱알이 파헤친다. 스포츠잡 알리오는 2012년부터 웹사이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학생들에게 스포츠 관련 채용과 취업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공유만으로는 취업이라는 난관을 뚫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저자들은 “스포츠산업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멘토를 만들어 주자”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커리어를 디자인해 주기 위해 40인의 멘토가 의기투합했다. 대기업, 공공기관, 스포츠 관련 직업으로 다양하게 페이지를 구성해 구직자 입장의 간지러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준다.

엄마 아빠 어디가

●서울세계불꽃축제 (10.8 여의도 한강공원)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가을 대표축제. 한화그룹이 주관한다. 국내외 불꽃팀들이 참가해 다양한 각국의 불꽃을 감상할 수 있다. 불꽃축제 외에도 페어리드, 버스킹 공연, 시민참여 체험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시민참여행사가 여의도 한강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오후 7시 개막식에 이어 일본 팀 ‘텐 유어 매직 온’, 스페인팀 ‘매직 라이트 드림즈’의 불꽃쇼가 열린다. 오후 8시부터는 (주)한화가 대표로 나선 한국팀의 ‘마법같은 불꽃’을 공연한다.

●상주 이야기 축제 (10.7~10.9 상주 북천시민공원과 시내 일원)

3년 연속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문화 축제. 매년 상주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축제테마를 선정했는데 올해는 2015년에 이어서 자전거를 소재로 선정했다. 자전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와 자전거 이야기 경연대회’, 축제장 내 우체통에 엽서를 넣으면 DJ가 전화로 인터뷰하는 ‘DJs 우체통 이야기’, 축제장 주무대에서 시내 5km를 행진하는 ‘지상최대의 자전거 페어리드’ 등이 열린다.

눈으로 즐기는 식도락

홍콩 초행길? 양조위 단골 국수집…구글맵 달인은 60년대식 완탕집

동남아 명품 거리음식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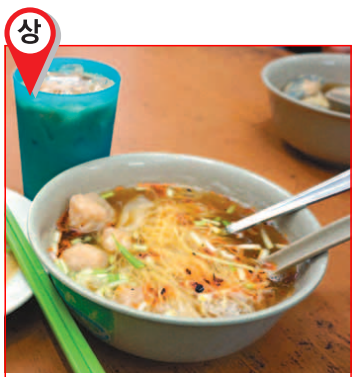
☞ 접근난이도로 본 홍콩 거리음식

홍콩은 자타공인 미식투어, 먹방여행의 본산이다. 미슐랭 가이드 2016년 판에 따르면 3스타 레스토랑 6개, 2스타 14개, 1스타 41개 등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만 61개다. 굳이 비싼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가지 않더라도 가격 대비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 가성비 훌륭한 거리음식점도 많아 여행객을 즐겁게 한다. 독특한 토마토 국수부터 한국식 김밥까지 홍콩 거리음식을 여행객의 접근난이도로 구분해 소개한다.

●접근난이도 하…홍콩 초행길도 찾을 수 있다

(1)진한 소고기 육수-카우키(Kau Kee /21 Gough St, Central)

관광객이 즐겨 찾는 란콰이퐁 골목에 있다. 배우 양조위의 단골집으로 유명해진 60년 역사의 소고기 국수집이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것이 느껴지는 소고기 육수가 압권. 고명으로 얹어주는 고기도 푸짐하다. 어설피지만 한글 메뉴도 있어 주문이 어렵진 않지만 서비스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늘



60년대식 완탕면-잉키누들



떠먹는 국수-블록18도기스누들



한국김밥-켈리스 카페 밥



소고기 국수-시스터 와



양조위 단골국수집-카우키



토마토 국수-신흥유엔

줄이 길고 내부가 좁아 합석은 기본이다.

(2)아침 해장에 딱-신흥유엔(勝香園/Mee Lun House 2號 Mee Lun Street, Central)

카우키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이제는 몇 남지 않은 홍콩식 포장마차, 다이파이동 중 가장 유명한 노천식당이다. 골목 한 편에 천막을 친 허름한 모양새지만 토마토국수의 완성도는 범상치 않다. 햄, 계란 베이컨 등의 고명을 고를 수 있다. 뜨거운 토마토 육수의 풍미가 의외로 시원해 해장용으로 좋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침 8시부터 영업한다. 대신 오후 5시만 문을 닫는다.

●접근난이도 중…구글맵과 지하철만 탈출 알면 OK!

(1)떠먹는 국수-블록18도기스누들(Block18 Doggie's Noodle/27-31 Ning Po St, Yau Ma Tei)

지하철 조단역에서 걸어서 5분, 구글맵을 사용하면 쉽다. 면발이 강아지 꼬리처럼 생겨 강아지국수라 부른다. 국수지만 수제비처럼 떠먹기 때문에 주문하면 수저만 달랑 나온다. 똑똑 끊어진 면의 식감이 좋고 국물도 구수하다. 함께 주문한 튀긴 어묵은 기름진 외양과 달리 중독성이 있다. 영어가 거의 안 통하니 간판그림을 가리키며 주문하는 게 편하다.

(2)홍콩 도심의 한국 김밥-켈리스 카페 밥(Kelly's Cape Bop 57 Johnston Rd, Wan Chai)

홍콩 중심가에서 김밥, 떡볶이, 닭강정 등 한국

분식을 맛볼 수 있다. 카페같은 인테리어와 한글 메뉴판이 인상적. 한국사람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까’은 걱정이 되지만 미슐랭 가이드의 추천을 받은 홍콩 거리음식점 중 하나다. 단, 가격은 거리음식점 중 가장 비싸다.

(3)카우키와 쌍벽 소고기 국수-시스터 와(Sister Wah 華姐/13A1 Electric Road, Tin Hau)

카우키 못지않게 소고기 국수가 유명한 집이다. 지하철 틴하우(Tin Hau 天后)역에서 내려 일렉트릭 로드로 가면 된다. 이 집도 늘 사람이 많아 합석이 대부분이다. 카우키보다 국물의 감칠맛이 살짝 달한데, 산뜻한 양치머리 육수의 이 집 국수를 카우키보다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접근난이도 상…홍콩 버스 탈 수 있으면 도전

(1)60년대식 완탕면-잉키누들(Ying Kee Noodle 英記美點小食/Shop 10, Hong Keung Mansion, 32-34 Hong Keung, San Po Kong, San Po Kong)

60년대식 홍콩 완탕면을 맛볼 수 있다. 관광명소와 거리가 먼 일반 주택가에 있어 서민적인 동네 풍경도 매력적이다. 녀석 좋고 불임성 있는 주인이주머니도 재미있다. 담백한 국물과 적당한 고들거리는 면발이 맛있고 가격도 착하다. 다만 찾아가는 길이 꽤 어렵다. 조련역이나 몽콕역 앞에서 버스 11번을 타는 것이 가장 좋다. 구글맵 이용 시 영어명이 같은 다른 집들이 있으니 한자로 검색하는 게 좋다.

홍콩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